

旌閣의 建築的 特性과 禮的 秩序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洪升在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安善豪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1. 서론¹⁾

고대로부터 충·효 사상은 국가의 기본적인 덕목이었으며 국가에서는 풍속의 미화와 사회 교화를 위해 충·효를 잘 이행한 사람에게 旌表하여 장려하였다. 旌表란 어진 행실을 칭송하고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을 뜻한다. 특히 조선시대는 유교적 윤리를 보급하고 성리학의 이념으로 사회를 교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표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정표의 포상방법에는 旌閣, 旌門, 復戶²⁾, 贈物, 贈職, 敘用³⁾ 등이 있다. 그 중 정려와 정문은 다른 포상과는 달리 가시적인 구조물로서 현재까지도 촌락의 주요한 시설물로 남아 있다.

오늘날 정려의 의미는 충신·효자·열녀 등의 행적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그들이 살던 고을에 旌門을 세워 기념하는 것을 뜻하며,⁴⁾ 旌閣과 旌門도 뚜렷한 구별 없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는 그 의미에 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王朝實錄」에 나와 있는 정표의 기록을 보면 旌門 또는 旌門復戶와 旌閣, 旌表門閣, 旌表門里 등으로 포상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 그 의미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본래

의 語義를 통해 볼 때 旌閣은 마을 입구 등에 세우는 정문을 일컫고, 旌門은 효자·충신·열녀가 난 집 대문이나 대문 앞에 세우는 홍(살)문을 일컫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마을 어귀에 세운 대문을 閫門 또는 里門이라 칭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이 旌門과 旌閣을 풍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이 旌閣이다. 旌閣은 일반적으로 旌閣閣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旌閣과 旌門을 의미의 구분 없이 사용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旌閣과 旌門의 의미를 구분하여 旌閣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건립한 閣을 旌閣閣이라 한정하고, 이 정려각과 솟을대문 형식으로 꾸며진 정문, 석정려각 등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 旌閣이라 칭하고자 한다.

정각은 旌門과 旌閣의 단순한 보호각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三綱을 장려하고 백성을 교화하며 문중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정각은 국가의 정표정책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향촌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건축적으로도 다른 유교건축과는 달리 공포의 구성이 매우 장식적이며 건축의 유형도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교건축에 대한 연구는 서원·사우, 향교 등에 집중되어 있고 旌閣의 건축사적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⁵⁾

1) 이 논문은 1999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됨

2) 요역과 田稅 등의 잡부금을 면제하던 일

3) 죄가 있어 면관 당하였던 사람을 다시 등용하는 일

4) 이기문, 「동아세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3

이는 旌閣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많은 旌閣이 命旌의 역사와 건축연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적 내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헌적 자료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旌閣의 건축적 특성과 유교의 禮의 秩序에 따른 공간적 질서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표의 역사와 旌閣의 건립배경 등을 국가의 정표정책과 조선 후기 문중활동과 연관지어 살펴 보았고, 또한 정문과 정려의 역사 및 형태, 정각의 건립과정을 고찰하였다.

현장조사는 전북지역으로 한정하고 도내 정각 중 1910년 이전에 건립된 약 100여 동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각의 장소성을 포함한 건축적 특성과 命旌의 역사 및 정표자와 관련하여 정각 건축의 禮의 秩序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정표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

2-1. 국가의 정표정책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효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며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⁵⁾고 할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충·효·열을 장려하였고 이를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그 행적에 대해 표창하고, 만민의 모범으로 삼아 풍속을 미화시키고자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太祖大王 66년(A.D 118년) 8월조에 '命所司 擧賢良孝順'⁷⁾라 하여 孝子와 順孫에 대해 천거토록 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며⁸⁾ 이밖에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등에서도 정표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高麗史」列傳 第34卷에는 충신 6명, 열녀 12명, 효자 16명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旌門과 비를 세우며, 復戶와 賞物로 포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도 정표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 시대는 유교적 윤리의 보급과 성리학적 이념으로 사회를 교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표정책을 실시하였다.

태조는 즉위교서에 "충신·효자·의부·절부에 대해 所在 官司로 하여금 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門閭를 세워 旌表하게 할 것이다."⁹⁾하여 개국초기부터 중앙집권적인 정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유교적 정표정책은 이후에도 줄기차게 추진되며 특히 세종과 성종년간에는 「孝行錄」의 重修(1428)를 비롯하여 「三綱行實圖」¹⁰⁾(1431), 「언문삼강행실열녀도」(1481), 「東國輿地勝覽」등 禮俗에 관한 서적을 편찬함으로써 유교적 실천윤리를 보급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중 동국여지승람은 역사적 人物, 古跡, 陵墓, 佛宇 등 문화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며, 효자·열녀조가 새로 수록되는 등 특히 禮俗에 관계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의 정표자들을 보면 주로 주자가례에 의해 喪禮를 잘 치르고 廬墓를 잘 하였을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표정책이 풍속을 교화시킴과 동시에 주자가례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중종은 연산군때 해이해진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충신·효자·절부들에 대해 포상을 더욱 힘써 행하고 퇴폐해진 정문을 다시 세우는 등 정표정책에 힘썼는데 이는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므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했다.

이후의 역대 왕들도 역시 정표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포상이 내려지는데 포상의 종류에는 旌閣, 旌門, 復戶, 贈物, 贈職, 敍用등이 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인 숙종년간에는 재난시에 순절한 충신·열사 및 절부에 대한 정표가 많았다. 이들 중에는 후손들이 정표를 청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며, 가문위주의 정표도 적지 않았다. 한 가문에서 형제, 부자 등 여러 명이 함께 정표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행적의 기록 없이 수십 명씩 포상되는 등 정표가 쉽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었다.¹¹⁾ 이는 16세기말 이후 사림세력의 성장과

5) 건축분야에서는 김지민의 "정려건축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6년 10월호) 한 편이 있으며, 사학분야에서는 박주의 단행본 「조선시대의 정표정책」이 대표적이다.

6) 「高麗史 列傳」, 제 34권 위초

7) 所司(소사)에게 명하여 賢良(賢良方正의 士)과 孝順(孝子順孫)을 천거하게 하다. 「三國史記」卷15, 高句麗 本紀, 第3, 太祖王 66년 8月條

8) 정구선, "조선전기의 효행천거제", 「경주사학」 제 11집, (「조선전기 논문선집」, 삼귀문화사, 1996년)

9) 「태조실록」 권1 태조1년 7월 28일

10) 「삼강행실도」는 일반 백성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詩, 贊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전라북도 열녀각의 건립주체별 분류

구분	국가				문중				개인				향교 등 단체				계
	문	각	비각	계	문	각	비각	계	문	각	비각	계	문	각	비각	계	
전주								0		2		2				0	2
군산		1		1			5	5				0				0	6
익산			1	1		2	1	3				0				0	4
정읍	3	3		6	5	4	2	11		1		1				0	18
남원		2	2	4	3	1		4				0				0	8
완주		2	2	4		2	1	3				0				0	7
진안		1		1			1	1			1	1				0	3
무주		4		4			1	1				0		1		1	6
장수	1			1	1	1	1	3				0				0	4
임실			1	1		4		4				0				0	5
순창							1	1				0				0	1
고창	1	4		5	1			1		2		2				0	8
부안		3		3			2	2				0				0	5
김제						5	1	6		3		3		1	1	2	11
계	5	20	6	31	10	19	16	45	0	8	1	9	0	2	1	3	88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 정표도 당파에 따라 정표되었다가 정문이 철거되는 등 朋黨적 성격을 띠게 된다. 급기야는 영·정조 때 봉당의 근원인 서원·사우의 설립을 규제하였지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18세기이래 사회적 모순의 심화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야기하였으며,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기강의 문란과 신분체제의 붕괴로 봉건제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가 변동하고 기존의 가치질서가 무너지던 시기인 순조, 헌종, 철종년간에도 18세기와 마찬가지로 先祖의 顯揚을 위하여 후손들의 상소로 인해 구체적 행적의 기록 없이 많은 수를 정표하였다.¹²⁾

고종년간에는 장례원에서 돈을 받고 정문을 세워 주는 등 정표정책이 매우 문란하였다.¹³⁾ 「고종

실록」에 나오는 정표자의 수는 적으나, 실제 정표자의 수는 역대 왕 중에 가장 많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일전쟁·러일전쟁 등 열강의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국가는 외부적으로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정표를 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표정책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교의 보급과 백성의 교화, 三綱의 장려, 민심의 수습 등의 일환으로 활발히 펼쳐졌음을 볼 수 있다.

2-2. 문중의 역할

양반 특히 지역내에서 어느 가문의 지위는 富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누구'의 후손이며 또 그 '누구'의 후손 중에서 얼마만큼 훌륭한 인물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品定하였다. 이 밖에도 그 가문의 결혼에 있어 대상 가문을 얼마나 잘 택하였으며 '奉祭祀 接賓客'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있어 양반으로서의 체통을 얼마나 잘 지켰던가 하는 것들도 기준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14) 송준호 "1750년대 익산지방의 양반", 「전북사학」, 제7집

15) 박 주, 앞의 책

16) 박 주, 앞의 책 pp 213-219

17) 이혜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국민대 박논, 1993

18) 이수봉, "백제문화권역의 효열실화연구", 1987, 내용을 수

11) 박 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12) 박 주, 앞의 책

13) 「고종실록」 권47, 고종43년 4월 7일

“장례원에서 旌門을 세워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례로 돈을 받아 내는 문제입니다. …… 사적의 사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오직 관례로 납부할 돈 800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고 허락하여 주니 행적은 빈소리로 되고 관례로 바치는 돈이 진짜 사실을 만들어 냅니다. …… 속히 예관(禮官)들을 엄하게 신칙하여 규례로 정한 旌門상납금(旌門上納金)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 폐지할 것입니다.”

14) 송준호 "1750년대 익산지방의 양반", 「전북사학」, 제7집

15) 박 주, 앞의 책

16) 박 주, 앞의 책 pp 213-219

여기에서 인물이란 대부분 고위 官職에 있었거나, 순수한 학자, 혹은 孝나 忠節과 같은 德行的 실천자로 국가와 사회에 큰 공헌을 바친 사람들이다.

17세기에는 禮의 절대 의식과 더불어 문벌의식의 과잉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문벌이 중시되는 17세기에 좋은 문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선조 중에 高官名臣이나 名儒大德·忠節·孝烈者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곧 이것은 자기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가문을 빛낸 현조를 밝히고자 후손들은 정표를 청하는 上言을 하였던 것이다.¹⁵⁾

숙종년간 이후에는 효자·열녀·충신들이 많은 수가 정표되었다. 특히 충신의 경우에는 그 후손들이 上言하여 정표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계속적인 전쟁에서 순절한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표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끝없는 후손들의 상소로 인해 정표되는 자가 많았으며, 그 후손들이 敍用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문벌이 중요시되는 17세기 이후에는 후손들이 선조 가운데 충신·효자·열녀를 밝혀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17·8세기 서원과 사우의 남설현상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문중활동 양상을 몇 개의 커다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족계창립, 종가와 사당건립, 서당(정사)과 학제마련, 누정과 제실건립, 서원·사우건립과 운영, 족보와 선조문집의 발간, 旌閭포장과 추증 등이 있다.¹⁷⁾

이처럼 조선후기의 정표는 사람의 성장과 함께 문중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향촌에서는 포상으로 내려진 정문·정려를 보호하고 가문을 과시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정각을 건립하게 되었다. (표 1)¹⁸⁾은 전라북도 열녀각의 건립주체별 분류로 시기의 구분은 없으나 대부분의 旌閭은 국가와 문중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旌門·旌閭·旌閣의 건립과 형태

14) 송준호 “1750년대 익산지방의 양반”, 『전북사학』, 제7집

15) 박 주, 앞의 책

16) 박 주, 앞의 책 pp 213-219

17)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국민대 박논, 1993

18) 이수봉, “백제문화권역의 효열설화연구”, 1987, 내용을 수정 정리한 것임

3-1. 旌門·旌閭

「삼국유사」에는 효녀 지은에게 ‘眞聖王이 穀五百石과 집 한 채를 下賜하고 군사를 보내어 그 집을 護衛하여 도적을 막게 하였으며 또 그 마을을 旌表하여 孝養里라고 하고 후에 그 집을 喜捨하여 절을 삼고 兩尊寺라고 이름하였다.’¹⁹⁾는 기록으로 보아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정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정문이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高麗史」列傳 第 34卷에는 충신 6명, 열녀 12명, 효자 16명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의 경우 旌門을 세우고, 孝子碑를 세우며 復戶하여 주고, 賞物로 포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정문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旌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종년간에 편찬된 「삼강행실도」 등의 삼강오륜에 관한 서적과 실록기사 등을 통해서 旌門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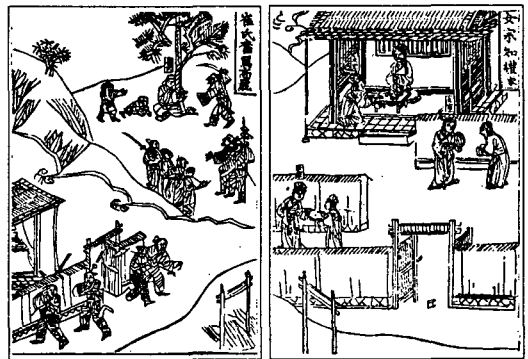


그림1. 「삼강행실도」 烈女條 崔氏奮罵 (高麗) 그림2. 「삼강행실도」 烈女條 女宗之禮 (宋)

위의 그림은 「삼강행실도」에 나오는 정문과 정려의 그림이다. (그림 1)은 고려 때 열부 최씨의 행적에 대해 都觀察使의 요청으로 정표되어 대문 앞에 세운 정문(都觀察使張夏以閭 乃命旌門)이고, (그림 2)는 송나라 때 鮑蘇의 처에게 烈女 정표를 내리고 세운 정려이다.(宋公聞之 表其閭)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문과 정려는 끝을 등그렇게 연봉처럼 조각한 두 개의 원기둥을 세운 후 두 개의 심방을 가로지른 형태로서 그 모습에는 차이가 없다. 한편 위치에 있어서는 (그림 1)의 정문이 대문

19) 「三國遺事」卷5, 孝善 第9 貧女養母 '事達宸聰, 時眞聖王賜穀五百石, 并宅一廬, 遣卒徒衛其家, 以敬劫掠, 旌其坊爲孝養里, 後捨其家爲寺, 名兩尊寺'

과 축을 맞추어 대문 앞에 위치하는 반면 (그림 2)의 정려는 대문과 축이 틀어져 위치하고 있어 마을 내에 위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듯하나 여타의 그림들에서는 대부분 旌門과 旌閣이 뚜렷한 구분 없이 그려져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등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이나 그림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부는 심방 사이에 살대를 꽂아 홍살문과 같은 모습이고 또한 살대 중간에 태극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旌門의 제도는 유교의 속성상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典型을 알 수 없고 중국의 牌坊門과 牌樓 등에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패방문은 한 쌍의 華表 사이에 위로 액방을 얹어서 문을 만들었고 액방에 명칭을 써넣었다. 여기에 문짝을 달면 烏頭門이나 橋聖門과 같은 종류의 문형식이 된다. 이러한 문은 나중에 장문으로 사용되었는데 관리들 주택 입구의 제식이 되었다. 또 다른 방면으로 패방문은 더욱 발전하여 고대 거주지역의 입구문인 坊門이 되었으며 따라서 패방이라고 하였다. 그 표지성의 기능을 한층 더 강조한 것이 牌樓이다. 패루는 액방 위에 두공과 龍門雀替 등을 얹어 지붕을 구성함으로써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다²⁰⁾

이처럼 중국의 패루는 지붕이 있어 비와 눈을 가릴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정문과 정려는 그대로 풍우에 노출되므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성종 8년 4월 22일에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 孝子·節婦가 있으면 門閭를 旌表하는 것이 참으로 성전인데 또한 뜻을 쓰지 않고 다만 길 왼편에 나무를 가로질러 두니, 심히 褒賞의 뜻에 어긋 납니다. 영해(寧海)에 節婦가 있어 매우 가난하고 또 늙었는데, 그 旌門 기둥이 썩었으므로 本官에서 節婦더러 수리하여 만들라 하니 침해하고 독촉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웃에 와서 구걸하여 수리하고자 하였으니, 소위 旌表라는 것이 모두 이 지경입니다. 빌건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중국 조정의 例에 의해 한 칸 시렁(架)을 짓고 扁額을 달아 褒揚하는 것을 보이게 하소서 …… 중략 …… 門閭를 旌

表하는 것은 褒揚하고 권장하는 것이요 보기에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우리 나라의 구례(舊例)에 의해 虛門을 지어 편액을 쓰고 그 아래에 비를 세워 그 姓名을 쓰고 행실을 대강 서술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 32년 9월 9일에는 김근사, 김안로, 윤은보 등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 중국에서는 科擧를 중시하여 그 출신자들에게 모두 門閭에 정표하였는데 이는 사문(斯文)의 성대한 일이므로 성조에서 곧 받아 거행하려는 것은 文을 높이고 선비를 권장한다는 지극한 뜻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중국과 형편이 다릅니다. 중국은 旌門 위에 비나 눈을 가리는 지붕이 있으므로 한 번 세운 뒤에는 다시 수리하는 수고가 없으나, 우리 나라의 旌門은 썩으면 또 수리하는 일을 되풀이하므로 형편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²¹⁾

따라서 예조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국과 같이 旌門·旌閣에 지붕을 구성하고 그 아래 편액을 달도록 하자고 아뢰며, 한편 예전의 例에 의해 虛門을 지어 편액을 쓰고 또한 그 아래에는 비석을 세워 성명과 행실을 써서 오랫동안 節義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虛門이란 문짝이 달려 있지 않은 문 즉 「삼강행실」도 등에 보이는 門閭와 같은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홍살문 아래 비석을 세우는 것은 현존하는 정려각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서문을 참조하면 ‘旌門은 三綱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旌門은 홍살문(紅箭門) 또는 작설(綽楔)이라고 하는데 홍살문은 주로 향교, 서원·사우, 왕릉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엄숙함을 뜻하고 있다. 살대는 법도의 끈고 바름을 의미하며 나라의 위엄을 상징한다. 경복궁의 침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사대부가에서도 쪽문 위에 살대를 세워 장식하거나, 판벽 창살에 살대를 끼우는 경우도 볼 수 있다.

3-2. 旌閣

旌門·旌閣은 그 위에 지붕을 구성하지 않아 풍우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계속적인 중수가 필요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였다.

20) 李台鈺 저, 이상해 외 3인 譯,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pp91-93). 시공사, 2000년

21) 「中宗實錄」, 卷85, 중종32년 9월 9일 (乙酉)

중종 37년 7월 27일 행부사과 어득강은 闕을 지어 門闕을 보호하자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 前朝와 本朝의 충신·효자·효녀·順孫·節婦·열녀에 대해 旌表하는 門闕을 세우거나 혹은 기둥(寧)을 세워 이름을 쓰고 혹은 비석을 세워 이름을 새기는 데 있어 수령들은 으레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글씨도 잘 못쓰는 이서(吏胥)들에게 쓰게 해서 불품이 없고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신은, 다시 기둥(寧)을 세우고 비석에 이름을 새겨서 闕을 지어 보호하고 단청까지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²²⁾

세종년간에 비각에 관한 기록²³⁾을 보면 旌闕의 건축적 형태는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정각이 건립되는 것은 중종년간부터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국가에서 하사한 旌門·石碑·扁額이 풍우로 인해 손상되어 자주 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무너져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闕을 지어 보호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로 여겨지며, 여기에 더하여 단청까지 하는 것은 소박한 유교건축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표의 목적이 의를 칭송하고 널리 알리는 데 있으므로 화려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며 旌闕은 비석이나 홍문(紅門)보다 건축적인 가시효과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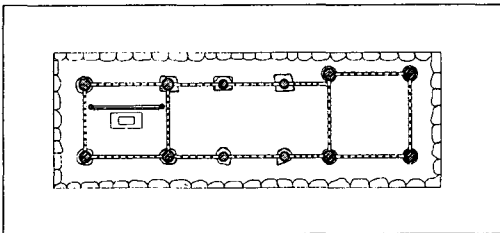


그림 3. 최씨지려 (김제시 금구면)

현존하는 旌闕과 어득강의 상소를 비교해 보면 旌闕의 初期 형태는 旌闕 안에 旌門과 비석이 함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김제시

22) 『中宗實錄』, 卷98, 중종37년 7월 27일 (乙亥)

23) 『世宗實錄』, 卷101 세종25년 8월 25일 丁未

“여러 곳의 비명(碑銘)이 혹시 비에 씻기고 바람에 갈려서 자획이 이르러질까 염려되어, 집을 지어서 바람과 비를 가리게 하였사온데, 그것은 비록 아름다운 뜻이나, 항상 수리하지 아니하면 혹시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비명도 역시 헐[毀折]게 될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예전에 있던 비각(碑閣)을 모두 다 철거하게 하소서.”

금구면 최씨지려로서 가운데 효자 최식 旌門(1797년 명정)을 중심으로 좌우로 旌闕이 건립된 형태이다. 중앙은 솟을대문을 구성하여 홍살로 꾸미고 편액을 걸어 旌門을 구성했고 양옆은 정각을 꾸몄다. 그 중 서쪽이 효자 崔和의 旌闕인데 정각 내부에는 비석이 한 중앙에 위치하고 그 뒤로 정문을 세워 편액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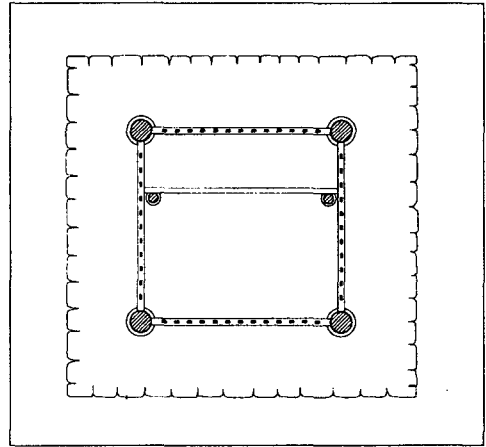


그림 4. 이흥발 정려각 평면도 (전북 전주, 영조 대 命旌)

또한 「삼강행실도」의 旌門·旌闕의 그림과 같이 문만 있는 旌闕도 존재하고 있다.(그림 4)는 1753년에 命旌된 이흥발의 旌闕이다. 이 정각은 묘소 아래 재실과 같이 위치하며 정각의 내부에는 旌闕 편액을 달아 놓은 정문만이 세워져 있다. 이 정문을 보호하기 위해 외별대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워 한 칸의 홀처마 팔작지붕의 정각을 구성했다. 공포는 초익공구조이며 角材의 椽木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예전의 정문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규모로 세워졌지만, 유지관리를 위하여 旌闕 안에 旌門을 세움에 따라 旌門의 규모가 작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각은 계속 건축되다가 숙종년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각이 건립되고 보편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숙종년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정표되는 사람이 많았고, 예적 질서가 자리를 잡으면서 향촌사회에 문중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는

24) 김제시 옥산동 귀산에 있는 효자각은 1664년(현종5년)에 명정을 받아 1707년(숙종33년)에 중수한 기록이 있으며,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의 旌闕각은 인조대 명정을 받아 1709년(숙종35년)에 중수기록이 남아 있다.

숙종 38년(1712년) 최덕종의 「연행록」에 나오는 기사²⁵⁾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정각은 문중의식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건립하였으며 매우 장식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정각들은 기단을 아주 낮게 조성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기둥 밑이 부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²⁷⁾ 따라서 후기 건물이라 판단되는 旌閣들은 주로 장초석을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旌閣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며 내부에는 初期 형태와 같이 정문을 세우지 않고 뒷벽에 직접 편액을 걸거나 중앙에 비석을 세운 것이 대부분이다.

旌閣은 솟을대문의 형태와 旌閣閣, 석정려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솟을대문의 형태는 후대에 이르러 대문이나 대문 앞에 세우던 旌門이 유지관리를 위해 솟을대문으로 옮겨지면서 대문에 홍살을 세우고 정려편액을 달아 놓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마을 입구 등에 세우던 旌閣은 정려편액과 정려비를 보호하는 旌閣閣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석정려각은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고종년간에 주로 건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정각건축과 禮的 秩序

4-1. 건축적 특징

旌閣은 효자각, 충신각, 열녀각 등이 있으며 그 모습은 크게 정려각과 솟을대문 형태, 석정려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정표자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 형제가 효를 행한 경우는 雙孝閣, 부자가 대를 이어 효를 행한 경우는 世孝閣, 충신·효자·열녀가 함께 나온 경우는 三綱門 등으로 일컬어진다.

旌閣閣은 건축적 규모가 작고 간소하게 구성하였으며 그 수법은 대부분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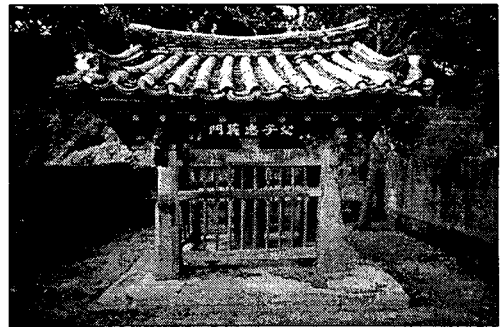


그림 5. 부자 충의문 (정조대 명정, 남원)

기단은 일반적으로 아주 낮게 구성하였으며, 주초가 기단이 없이 지면에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단과 주초가 약하기 때문에 기둥下部가 부식되는 구조적 결함이 많이 노출된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많은 정려각들은 점차 장초석을 세우고 그 위에 낮은 두리기둥을 세워 정려각을 구성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일부 정려각은 석기둥을 세우기도 하는데 남원의 父子忠義門은 8각으로 민흘림을 주어 치석한 석주를 세우고 석주머리를 사갈로 터서 직접 창방과 익공쇠서를 결구하였다.

정려각의 벽은 벽체없이 사면에 홍살을 사용하여 내부의 정려편액이나 비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정려각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命旌에 관한 내용이 잘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둥상부는 납도리집, 굴도리집, 민도리집과 같이 간략하게 꾸몄다. 드물게 多包집으로 화려하게 구성한 예도 있으나 대부분 이익공 형식을 취하고 있다. 쇠서는 연봉, 연화 등을 조각하였고 (그림 6)과 같이 일부 건물은 용두 등을 끼워 처마 밑을 화려하

25) 최덕중, 「연행록」, 임진년12월 pp212-213 숙종38년(1712년)

「연행록선집 Ⅲ」, 민족문화추진회, 1976년

“남문 안에 돌 패루(牌樓) 둘이 있는데, 모두 다듬은 돌로 지어 서, 요동 관왕묘의 1량 3간문 같았다. 주추는 돌로 사자를 만들었고, 그 사자 위에 돌기둥이 있어, 높이가 대어섯 길쯤이었다. 3층으로 된 누각이며, 기와와 창호도 또한 다듬은 돌로 조각한 것이었다. … 중략 …이것은 우리 나라 旌閣閣의 홍문같은 것으로, 백성의 힘이 이런 때에 다 소모되었다 한다.”

26) 「英祖實錄」, 卷33 영조9년 3월 28일(己酉)

윤득화가 永柔縣의 任所에 있으면서 상소한 내용을 보면 “涇江 동서의 長林 일대에 丹青이 휘황한 건물이 장대하고 미려한 것은 모두가 비각이요 生祠堂이니, 뒷날 적의 기병이 질풍처럼 달려올 경우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私情만을 따라 아첨하는 것이 풍속을 이룬 탓으로 단지 체급의 豐搏과 형세의 高下에 따라 비각과 사당의 多少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예의 유무로 그 인물의 能不를 綜核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후에는 이른바 비각이라는 것을 일체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사의에 맞겠습니다.” 하였다.

27) 「世宗實錄」, 卷106, 세종26년 9월 28일(癸卯)

“계릉(齊陵)의 비각은 자리가 낮고 축축하여서, 덥고 비 올 때에는 땅이 불어 빗물이 새고, 섬돌 밑으로 물이 솟아오르며, 또 비석 위로 목재와 기와를 많이 쌓아 커다란 집을 짓고, 꼭대기에다 큰돌을 올려놓았는데, 그때의 기관으로는 그럴 듯 하였지만, 만약 여름의 비올 때에나 겨울의 일부풀 때에 주춧돌 하나라도 까딱 기울게 되면, 그 무너질 형세가 어찌 천군 무계에 눌린 새알에 비할 뿐이겠나이까”



그림 6. 공포(정읍시 칠보면 김상현 정려각)

게 장식하였다. 창방 위에도 귀면화반, 잉어모양의 화반 등을 끼워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2. 旌閣의 지붕구성

지역	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타	계
		홀처마	겹처마	홀처마	겹처마		
고창		4	8	2	2		16
군산		4	7	1	1		13
김제		12	20	4	1	4	41
남원			18	5	8		31
무주				3	8		11
부안		2	8			1	11
순창			3	2	11		16
완주		6	6	3	1		16
익산		3	6	3	13	1	26
임실		3	8	6	3		20
장수			3		6	1	10
전주		10	1				11
정읍		11	13		4	5	33
진안			3		3	1	7
계		55	104	29	61	13	262

旌閣은 지붕을 구성함에 있어서 (표 2)와 같이 칸수에 관계없이 주로 팔작지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맞배지붕보다 팔작지붕의 모습이 더 화려하고, 지붕의 위계도 팔작지붕이 맞배지붕보다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처마는 주로 겹처마로 구성하였는데 겹처마는 홀처마보다 旌閣을 풍우로부터 잘 보존할 수 있으며, 지붕이 좀더 장식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지붕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주에서는 팔작지붕 외에 다른 형태의 지붕은 나타나지 않고 고창, 군산, 완주, 정읍 등에서도 주로 팔작지붕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반면에 무주에서는 맞배지붕만 나타나고 순창과 익산에서도 맞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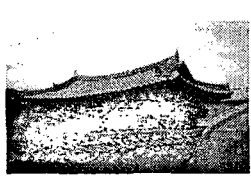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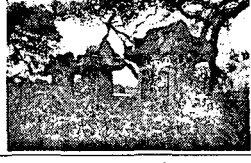
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붕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旌閣은 모든 부분이 간소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단청이 화려하고, 공포나 화반 등 장식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다른 유교건축과 비교된다.

4-2. 旌閣의 類型과 禮的 秩序

旌閣은 (표 3)과 같이 건축적 형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표자가 다수일 때는 건물의 배치와 편액을 모시는데 있어 정표자의 위계에 따라 유교의 禮的 秩序가 지켜지고 있다.

표 3. 旌閣의 유형분류

	
기본형	병렬형
	
다칸형	솥을대문형
	
석정려각	

(1) 기본형(정면 1칸×측면 1칸)

대부분의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표자의 수가 1명일 경우에만 나타나며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려각의 원형적 모습은 정면 1칸에 측면 1칸으로 이루어졌고, 평면의 2/3 지점에 정문을 세워 편액을 걸고 중앙에는 정표의 내용을 기록한 石碑를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형은 단청을 칠하여 멀리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본형 정려각은 石碑와 扁額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石碑나 扁額 중 하나를 걸어 놓은 경우가 많다. 비석은 중앙에 위치하며, 편액은 뒷벽에 걸어 놓거나 중앙에 부재를 설치한 후 걸기도 하였다. 이것은 처음에 정문을 세워 편액을 걸어 놓았다가 점차 간소하게 뒷벽에 편액만 걸거나 석비만을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旌閣은 내부에 모셔진 편액이나 비석에 관계없이 규모나 크기가 다양하며 건축의 모습도 정표자의 성별에도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旌閣은 대부분 주위에 담장으로 둘러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파손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2) 병렬형

이 형태는 기본형 정려각이 열을 이루어 좌우로 나란히 있는 형태이다. 정표자에 대해 각각의 정려각을 세우는데 정려각의 위치는 대지내에서 정려각의 수와 정표자에 서열에 따라 배치가 달라진다.

경북 의성에 있는 칠정려의 경우 6동의 정려각이 있는데 命旌년대에 따라 서측부터 동측순으로 旌閣閣이 위치한다.

방위의 위계에 있어서 西側을 東側보다 上位로 생각하는 유교적 방위 차서²⁸⁾에 따라 서측부터 命旌년대 순서대로 정려각이 세워져 있다.

남원시에 있는 병렬형 정려각의 경우 제각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三孝閣, 雙孝閣, 孝烈閣이 있는데 命旌년대에 따라 서측부터 동측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명정년대는 서측의 삼효각부터 철종 12년(1861), 고종 7년(1870), 고종 24년(1887)이다. 서측의 삼효각은 세 분의 정려편액을 내부의 삼면에 걸어 놓았다. 가운데의 쌍효각은 형제가 같이 받은 정려편액 1개를 걸어 놓았으며, 동측에 위치한 효열각 안에는 열녀편액이 걸려 있다.

한편 (그림 7)과 같은 3동의 병렬형 정각은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의 정려각이 중앙에 배치되기도 한다. 서측에는 다음 서열의 정려각, 동측에 서열이 가장 낮은 정표자의 정려각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병렬형 정려각이 짝수일 경우에는 유교적 方位 次序에 의해 서측부터 동측으로 배열하였지만 3개일 경우에는 次序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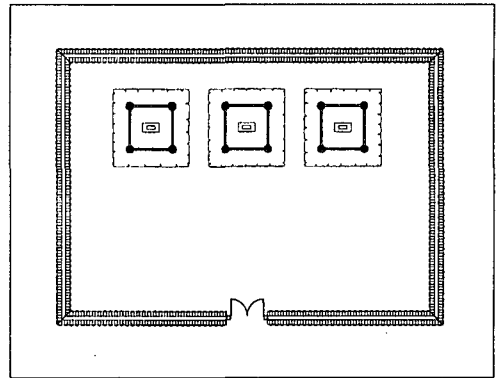


그림 7. 남양 홍씨 정려각 (전북 김제)

(3) 다칸형

다칸형은 정표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 나타난다. 내부는 칸을 나누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측면은 1칸이 많고 간혹 2칸으로 된 것도 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면의 칸수는 4칸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상도 지역에는 현풍곽씨 12정려각²⁹⁾이 존재하고 있다.

한 칸에 하나의 정려편액이나 정려비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다수의 정려편액이나 정려비를 모시는 경우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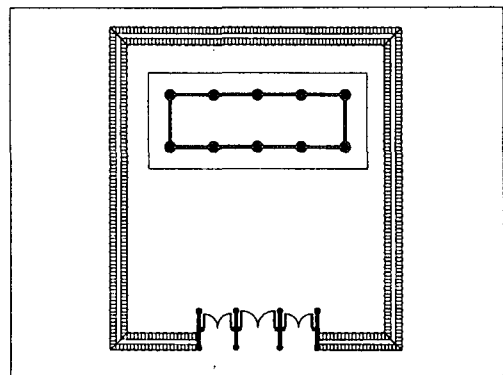


그림 8. 삼사문 (전북 김제, 고종조 命旌)

이 같은 형태는 문중에 정표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자의 정려각을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많은 수의 정려편액이나 정려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다칸형에서도 유교적 方位 次序에 따라 서측부터 순서대로 편액이 모셔져 있다.

28) 유교의 의례에서 方位의 次序는 陰陽에 따라 東西의 위상이 달라지는데 사람의 行禮 즉 陽의 경우 東側이 上位이고 위패를 모시는 등 죽은 자에 대한 禮(陰의 경우)는 西側을 上位로 인식하고 있다. (洪升在,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禮制的 體系에 관한 연구”, 홍대 박논, 1992)

29) 현풍곽씨 12旌閣각은 정면 12칸에 측면 2칸이다.

조선 후기의 서적인 「호산외사」의 박태성·박수천 편30을 보면 旌閣扁額과 石碑의 배열이 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정표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주로 贈職이나 賞物로써 포상하고 정표자의 死後에 다시 旌門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旌閣편액이나 비석은 정표자의 사후에 받게 되기 때문에 편액이나 비석의 배열이 사당에 모셔지는 신위의 배열과 같은 것이다.

부부의 정려비를 모시는 정려각의 경우에도 남자의 정려비가 서측에 여자의 정려가 동측에 배열된다. 정면의 칸이 많더라도 칸을 나누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익산시 마동에 있는 ‘윤필성·밀양박씨 효열정려각’의 경우 부부의 정려비를 홍살로 칸을 나누어 분리하였다. 이것은 오류의 하나인 부부유별의 내용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³¹⁾

(4) 솟을대문형

旌門, 정려편액은 정려각 외에도 솟을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정문이 유지관리의 편의상 대문과 결합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이 경우 솟을대문 내부의 대문 앞에 旌門이 있으며 旌門 뒤에는 문이 달려 있다. 비석은 없으며 일부 솟을대문은 포를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였다. 그러나 旌門을 생략하고 문 윗부분을 홍살로 꾸미고 홍살에 정려편액을 걸어 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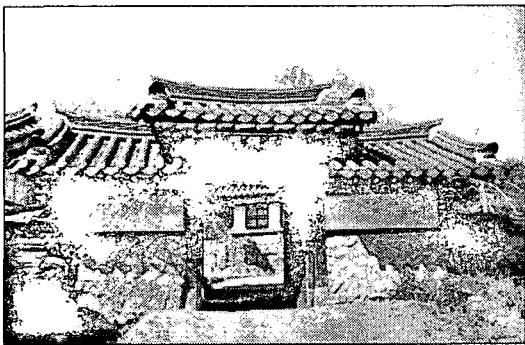


그림 9. 남원 흠실마을 남원 죽산 박씨종가 삼강문

30) 조희룡著 남만성譯, 「호산외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0
 우리 나라 사람으로 살아 있을 때에 효자의 旌門을 세운 것은 전에는 이동악(李東岳)이 있고, 후에는 박효자가 있다. 두 사람이 모두 고금에 빛나서 정말 천후에 전할 만하다. …… 중략…… 예부에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니, 批答하기를, “보자가 모두 살아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을 위한 旌門을 세우게 되면 효자가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다.”하고 복호를 명하였다.

31) 부부가 동시에 旌閣를 받을 경우 하나의 편액을 내리기도 한다.

하게 한 경우도 있다.

정려편액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역시 方位의 次序에 따라 편액의 위치가 정해진다. (그림 9)는 남원 죽산박씨종가의 三綱門으로 충신·효자·열녀의 정려편액을 대문 밖에 걸어 놓았다. 여기에서도 유교의 禮的 次序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열순으로 충신의 정려편액은 솟을대문의 중앙에 위치시켜 높게 걸고, 서측에 효자의 정려편액을, 동측에 열녀의 정려편액을 걸어 놓았다. 이것은 次序에 대한 위계를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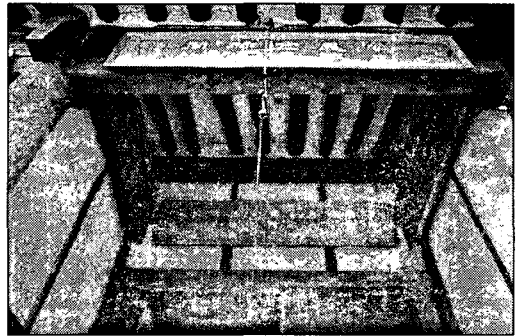


그림 10. 의성김씨가 솟을대문(정읍시 칠보면)

(그림 10)은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의성김씨 문중의 솟을대문으로 수 km 떨어진 곳에 정려각이 따로 위치하고 있다. 솟을대문에는 4개의 정려편액이 달려 있다. 대문 앞의 반 칸에 정려편액을 모셔 놓았는데 홍살은 없으나 (그림 11)과 같이 편액을 배열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방위의 차서는 앞에서 볼 때 북측이 최상위가 되고, 그 다음은 서측, 동측, 남측의 순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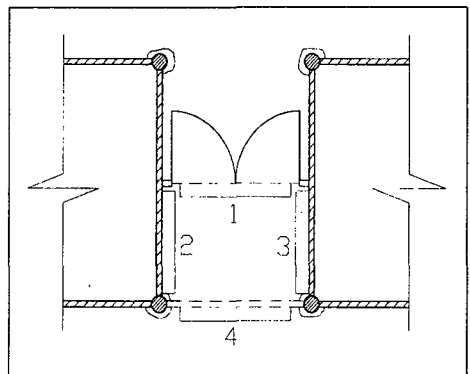


그림 11. 의성김씨가 솟을대문의 편액 위치

(5) 석정려각

석정려각은 화강암으로 된 석판에 돌기등을 세운 비석의 형태로 존재한다. 석판의 정면에는 命旌에 관한 내용을 새기고, 배면에는 정표자의 행실을 새겨 놓기도 하였다. 돌기등은 2개를 세우거나 4개를 세웠는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석정려각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목조와가로 된 정려각이 문중의식의 과잉현상과 함께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지만 유지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석정려각은 목조와가보다 건축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재료도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종년간에 전국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석정려각

(그림 12)와 같이 석정려각이 여러 개일 경우에 道 次序에 따라 서측부터 동측으로 배열해 놓았다.

4-3. 旌閣閣의 장소성

현존하는 정려각은 주로 마을입구, 마을 내 언덕, 묘소, 재사, 사당 등에 위치하며 각각의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을에서 정려각은 입구나 언덕 등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서 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하는 정려각은 씨족마을에서 그들 공동체가 삼강오륜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향촌사회에서 지배세력인 문중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며, 타인들에게 마을에 들어올 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씨족마을에서는 문중의 정려편액과 정려비를 한 곳에 모시고 있으며 문중이 다를 경우에는 그 위치가 다르다. 같은 씨족간에도 정려각이 한 곳에 위치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방계 자손이 직계 자손과 대등하게 보이려고 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 입구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는 마을에 진입할 때 잘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여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旌閣閣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는 것은 정표의 본래의 의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어진 행실을 칭송하여 백성을 교화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문중의 과시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효자 신증영旌閣閣 (고종대 명정, 익산시 금마면)

(그림 13)과 같이 종종묘소에 위치하는 정려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주로 여묘살이를 잘하거나 효행이 뛰어난 효자의 경우 묘소에 旌門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호랑이가 도움을 주었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종종묘소에 위치하는 정려각은 행적을 기록한 비석, 재사와 함께 위치하기도 한다. 이흥발정려각도 묘소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중에서는 그 주위에 재사를 지어 관리하고 있다.

재사는 주 기능이 묘소의 관리와 墓祀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로서 반드시 묘소 아래에 있으며, 묘소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여러 位의 묘소관리와 묘사를 하나의 재사로 담당하게 한다. 즉 각 位마다 재사를 따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묘소가 모여 있는 선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재사를 건립한다. 재사·제각은 아직도 많은 수가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도 문중에서 건립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상의 재사를 지내는 일은 유교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재사·제각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문중이 모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문중의 결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여기에 정려각을 세워 놓은 것은 문중의 결집력을 높임과 동시에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조선시대는 유교적 윤리의 보급과 백성의 교화, 민심의 수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표정책의 실시하였으며 포상의 일환으로 마을 내에는 많은 旌門과 旌閭가 세워졌다.

旌門과 旌閭는 그 의미가 뚜렷한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으나 원래 정문은 정표자의 집 대문이나 대문 앞에, 정려는 마을입구에 세워진 홍살문과 같은 형태의 문을 일컫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문과 정려는 중국의 제도와 달리 지붕이 없이 풍우에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이므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閭를 지어 보호하게 된다.

旌閭의 건립은 중종년간 이후에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7세기 이후 활발해진 문중활동에 힘입어 많은 수가 건립되어진다.

현존하는 旌閭의 모습은 旌閭閣과 솟을대문형, 석정려각으로 나타나는데 旌閭閣은 다시 기본형과 병렬형, 다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려각은 마을 입구 등에 세워진 旌閭를 보호하기 위해 지은 閣이며, 대문 앞에 세워진 旌門은 유지관리의 편의상 대문과 결합되어 솟을대문형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석정려각은 고종년간에 많이 건립되었는데 이것은 석정려각이 木造瓦家보다 경제적이고 유지관리도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려각의 초기 형태는 내부 중앙에 비석을 세우고 그 뒤에 旌門을 세워 扁額을 걸어 놓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후대에 이르러 旌門을 세우지 않고 뒷벽에 편액만 걸거나 石碑만 세우는 등 간소화된 형태로 변화된다.

旌閭閣은 1칸×1칸이 기본형이다. 그러나 정표자가 다수일 때는 병렬형과 다칸형을 건립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건물의 배치와 편액의 배열에 있어서 정표자의 位階에 따라 方位의 次序에 따른 유교의 禮의 秩序가 지켜지고 있다. 즉 서측을 上位로 하여 서측부터 차례대로 건립되거나 편액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 동 병렬형의 경우 중앙에 가장 上位의 旌閭閣이 배치되기도 한다.

旌閭閣은 지붕의 가구 등이 매우 간소하게 꾸며져 있다. 지붕은 거의 팔작지붕 또는 맞배지붕인데 전북지방에서는 주로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나며, 또한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벽면은 4면 모두 홍살로 꾸며 내부의 편액이나 비석이 잘 보이도록 하였으며 공포는 주로 2익공의 구조이다. 공포는 매우 장식적이며 또한 단청이 화려하여 타 유교건축과 비교된다.

旌閭閣은 주로 마을입구, 마을 내 언덕, 묘소, 재사, 사당 등에 위치하며 각각의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마을입구에 위치하거나 눈에 잘 띄는 언덕 위에 위치하는 정려각은 三綱을 장려하고 문중을 과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며, 또한 묘소와 재사 등에 위치하는 旌閭閣은 정표자를 기림과 동시에 문중결속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

참고문헌

1. 박 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2.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의 정려·효열비각」, 전라북도, 2000
3. 홍승재,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제적 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론, 1992
4.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5. 이운상,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6. 이수봉, 「백제문화권역의 효열설화연구」,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7
7. 조희룡著 남만성譯, 「호산외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0
8. 박주, “18세기의 정표정책”, 「국사관논총」, 제2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9. 박주, “19세기의 정표정책”, 「국사관논총」, 제57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10.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국민대 박론, 1993
11. 김지민, “정려건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10호 통권96호, 1996년 10월
12.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
13. CD-ROM 검색 : 조선왕조실록, 삼국유사, 고려사절요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Confucian Order of Jeong-Gak

Hong, Seung-Jae

(Associate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Ahn, Seon-Ho

(Graduate Student,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Jeong-Gak is one of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Cho-Sun Dynasty. This study is founded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Confucian order of Jeong-Gak. The Cho-Sun Dynasty had put in operation positive Jeong-Pyo Policy for diffusion Confusion ethics and educate the people. Prize methods of Jeong-Pyo Policy are Jeong-Ryeo, Jeong-moon, remit corvee, present a post and present goods. Jeong-Moon and Jeong-Ryeo is red gate. Vocabularies of Jeong-Moon and Jeong-Ryeo have used mixing but I think that both meaning is different essentially each other. The red gate that elected in front of gate or gateway is Jeong-Moon and another red gate that elected an entrance a village is Jeong-Ryeo.

Jeong-Moon and Jeong-Ryeo have no roof, so they are many problem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ccordingly Jeong-Gak come out from the reign of King Jung-Jong because shelter of Jeong-Moon and Jeong-Ryeo.

The function of the Jeong-Gak is shelter of the Jeong-Moon and Jeong-Ryeo, encouragement of Sam-Gang(三綱) ethics, and ostentation of a family. Besides it has a monumental characteristic.

It has been distributed the whole country land that Jeong-Gak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ommunity of same family (rural community) the lat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e architectural particularity of the Jeong-Gak is brilliance of building materials as compared with different Confucian architecture and appearance of various architectural type.

It is that a type of Jeong-Gak appeared Jeong-Ryeo-Gak type, a lofty gate type, and Stone Jeong-Ryeo type. And there are keeping a rule that is to say Confucian order clearly